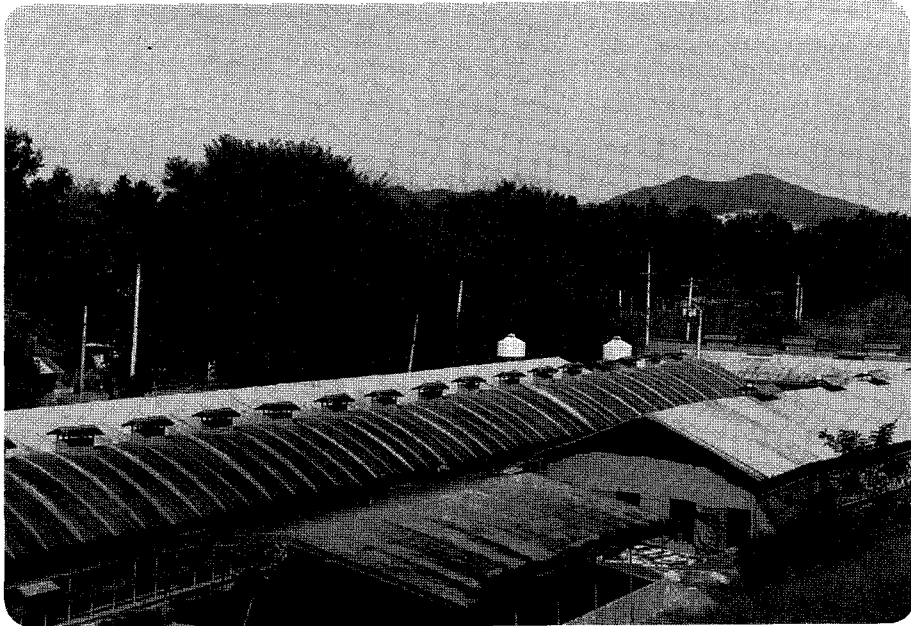


실용계능력이 최고가 될 수 있는 종계관리가 중요하다

□ 취재/이영오 기자



동남농원의 전경

우 리나라 농축산물은 '80년 초부터 수입개방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축산물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 양계산업도 예외없

이 수입개방에 직면해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품질개선과 생산성향상을

통해 우수한 산란계 병아리 생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동남농원 윤용구 사장은 현재 경기도 안성군 일죽면에서 세이버 스타크로스와 브라운 닥

의 종계를 사육하여 건강한 실용계 병아리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윤사장은 지난 '60년 후반 인산농원이 경영하던 사료, 종계회사에 근무할 당시 육용종계 코브와 '70년대 초 한국축산종계장에서 육용종계 아바에이카 그리고 산란종계 김바, 아바에이카 브라운 등의 품종을 관리해본 경험이 있기에 종계업과 인연을 맺었다.

'75년 양계기구 제작과 동물약품 소매를 시작하면서 지금의 동남농원 모태가 되는 동남축산 센터를 설립하게 되었다. 다년간 종계장에서 일한 경험으로 '76년에는 조립식 계사로 한국 최초 실용신안 특허를 취득하였으며 이후 의장 및 유사의장특허 등 7개의 특허를 취득하여 양계농가에서 보다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 보급하는데도 일조를 하였다.

'82년에는 법인 동남하우스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지난 '90년 산란계 세이버종계를 도입하면서 현 종계장인 동남농원으로 상호를 걸고 새로운 종계인으로 출발을 하게 되었다. 현재 국내 양계업은 대형화 추세로 가는 실정인데 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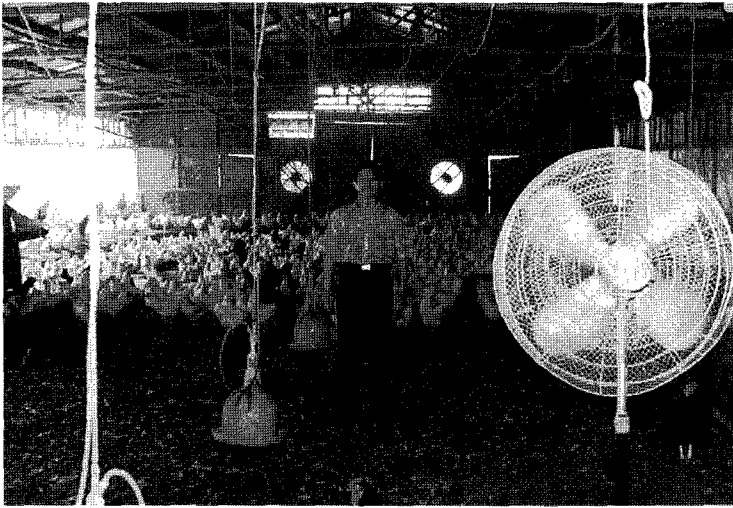
모가 커지는 것이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윤사장은 이 부분에 대해 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대형화 추세로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자기여건에 맞게 적정수수를 관리함으로써 인력절감과 아울러 닭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볼때 1인당 관리할 수 있는 적정수수를 알맞게 해야만 우수한 병아리를 생산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생각 때문인지 세이버스타 크로스 1만수, 브라운 닉 5천수를 사육하고 있으며 주당 입란능력이 6만개, 여기에 관리자 1인당 6천수 정도를 관리케 한다. 그러므로 관리자

가 항상 세밀한 관찰과 개체를 잘 파악하여 이상이 있는 닭은 즉시 격리사육을 하고 있다.

닭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볼때
1인당 관리할
수 있는
적정수수를
알맞게 해야만
우수한
병아리를
생산할 수 있다



직접 종계사를 돌보고 있는 윤용구 사장

계사내 환경을 최적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 환기는 자연 환기와 강제환기를 병행, 온도의 편차가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두고 있다. 종계를 입추시키기 전에 계사바닥에 있는 계분을 완전히 긁어내고 벽과 천정을 깨끗이 씻어내고 건조시킨 다음, 소독제를 충분히 살포하여 소독하는 것은 빼놓을 수 없는 과정이다. 그런 다음 바닥에 10cm 정도 새흙을 깔아 다시한번 소독한 후 입추하여 육성시키므로 세계사에서 육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계사내부가 청결한 상태가 된다.

성계사에서도 계사면적에 맞게 적정수수를 사육하여 환기, 온도, 습도 등을 수시로

체크하여 쾌적한 사육환경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 닭 특성상 대단위 밀집사육이 되는 만큼 위생적인 계육생산에 있어 질병문제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백신프로그램은 더욱 철저히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정기적으로 혈청검사를 의뢰하여 종계군의 항체가 수준을 조사함으로써 계군의 특정전염병에 대한 면역상태를 조기에 파악하여 질병가능성이 있는 계군에 대해서는 재접종을 실시해 종계가 지니고 있는 고유의 유전능력이 최대한 실용계에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사장은 종계장을 경영한 지 얼마되지 않다보니 어려웠던 점들이 상당히 많았다.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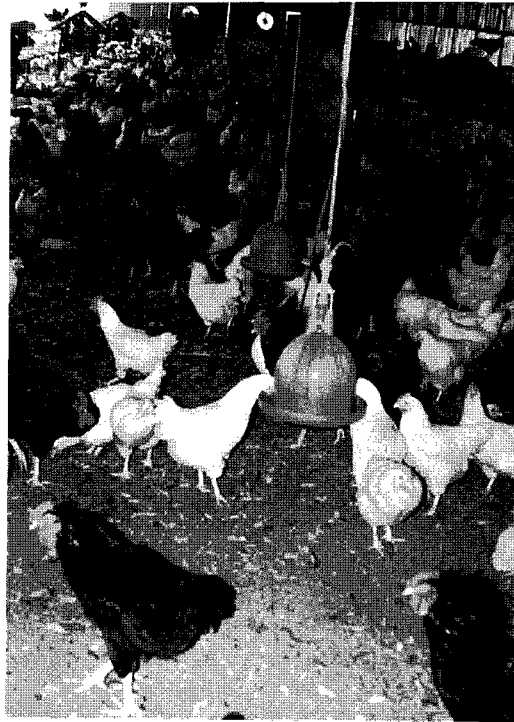
선 양계업이 불황일로에 있을 때 원종계, 종계업자들간에 병아리를 아무한테나 가격을 내려 팔고,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종계, 산란계, 육계병아리를 입추시켜 불황을 더 부채질하는 경우가 있음에 개선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여 왔다.

**정기적으로
혈청검사를
의뢰하여
종계군의 항체가
수준을
조사함으로써
계군의
특정전염병에
대한 면역상태를
조기에 파악...**

육계를 하는 사람이 육용종계를 인식하고 육용종계장은 산란종계, 왕병아리까지 생산하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 이들 대부분은 판매계획도 없이 생산만하여 난매를 치는 것을 실용계업자들은 무계획적으로 인식하여 과잉생산의 결과를

낳는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어 결국 원종계, 종계 그리고 실용계업자 할 것 없이 공히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말하면서 이런 악순환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첫째가 원종계농장에서 종계 공급대상자를 선별하여 공급해야 하며 일정한 기준에 미달되는 일반 양계장이나 종계장에 목계적으로 미등록종계를 공급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둘째는 원종계 농장에서는 종계가격을 연중 국제가격 수준으로 공급하고 종계장에서도 육계나 산란실용계 업자들에게 적절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고 셋째는 불황을 대처하는 방법으로 입란조절을 들고 있다.

앞으로 양계업의 불황타개를 위해 일정시기는 정해 부화를 안하고 종계업자나 산란실용계 업자들도 1개월을 4주로 나누어 병아리를 안 받는 달로 정하여 과잉입식을 막아야 할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양계업은 계절적, 경제적, 양계업계의 내부상황 등으로 조석으로 변화가 많은 업종이다. 이로인해 자기자신보다 전체업계를 생각하고 농장여건에 맞는 수수를 입식시켜 조절함



종계사 내부전경

으로써 내수시장에서의 과다경쟁을 막아 앞으로 완전수입개방에 대비해 공동대처하는 것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하는 윤용구 사장, 동남농원은 수입개방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우수한 병아리를 생산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런 취지로 지난 '92년 미

국 H & N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오는 10월17일 1만5천수의 브라운 닉을 베트남에 매월 1만수씩 수출도 하게된다.

앞으로 동남농원은 산란계 병아리를 생산하는 전문 종계부화장으로 거듭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계**